
From, 블로그씨

그거 아시나요? 오늘 하는 고백은 사실 진심이에요~ 만우절과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요?

살짝 진지 섞어서 답변해보자면 정말 우연이 아닌 이상 진심일 거 같긴 하다.
조금 수위 높은 거짓말도 유쾌하게 허락되는 날인데, 이 날 굳이 진정성 잔뜩 필요한 고백을?
만우절 핑계로 실연의 상처를 경감시킬 수 있으니, 나름 영리하게 고백할 수도 있겠다 싶다.
근데 나 같으면 하루 이를 간격두고 할 듯.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까봐 피할 것 같다.
근데 내가 말해주기 전까지 오늘이 만우절인지 몰랐던 사람이 있었던 걸 보면...
그냥 어찌다 고백한 날짜가 만우절일 수도 있겠다 싶다.

만우절에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뭘 했지?
교복을 남녀 바꾸어 입거나 앞뒤 뒤집어 입고, 책상 위치 돌리고 뭐 그랬던 거 같다.
벌써 기억이 가물가물...
대학교 오니까 교복을 입는 게 만우절 이벤트가 됐다.
오늘 많이들 교복 입고 학교 갔다고 하는데, 나는 오늘 학교를 안 가서 못 봤다.

오늘 만우절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겼다.
남자 동기방에서 카카오톡 선물 닙시 메시지 온 걸 보고 확 꽃혀서 꽤나 그럴듯한 카톡 닙시 메시지를 만들어서 써먹었다.
이거 써먹으면서 웃을 일이 많이 생기고, 그냥 오늘 유독 웃긴 일이 많아서 또 웃고.
오래간만에 정말 많이 웃었다.
카카오톡 닙시 관련해서는 따로 포스팅 해야겠다.